

40 오해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 베이컨은 연역, 즉 일반화된 법칙에서 개별의 결론을 추론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오히려 오류를 야기하기 쉽고, 올바른 지식은 항상 실험과 관찰이라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베이컨의 지적 생산 시스템에서는 무엇보다도 관찰과 실험이 중요하다. 반면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미덥지 못한 면이 있어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았다.

• 인간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베이컨은 ‘네 가지 우상(偶像)’을 제시했다.

- ① 종족의 우상(자연 성질에 의한 우상, 착각)
- ② 동굴의 우상(개인 경험에 의한 우상, 독선, 자신이 받은 교육과 경험에 근거)
- ③ 시장의 우상(轉聞에 의한 우상,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인터넷상의 거짓말)
- ④ 극장의 우상(권위에 의한 우상, 미디어의 우상, 편견)

• 인간의 지성은 이들 우상으로 인해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그에 맞춰 만들어 가는 성향이 있다고 베이컨은 강조한다. 이 집요한 믿음은 설령 그 사고에 반하는 사례가 드러난다 해도 그 사례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쉽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사람은 진리에 다다르게 되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